한국학연구 제74집 | 313~345쪽 | 2024.8.

# 일본 한국고전문학 연구의 지평과 역사

야마다 교꼬(山田恭子)*

〈차 례〉

1. 서론
2. 전쟁을 통한 한국문학의 전래와 화각본(和刻本) 간행
3. 부산 왜관의 한국어학습과 한국고전문학
4. 메이지(明治)시대 초기의 한국고전문학 번역
5. 한일병합과 식민지 경영을 위한 한국고전문학 번역
6. 한일병합 이후의 한국고전문학 연구
7.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한국고전 연구 변천에 초점을 두고, 일본인이 어떤 식으로 한국고전문학에 접하고 해석해 왔는지 고찰했다. 우선 임진왜란을 통해서 들어온『금오신화』와 그 이후에 유통된 화각본(和刻本)『징비록』,『난설헌집』,『삼강행실도』에 대해 소개하고, 그 해석을 위해 필수 교양이었던 주자학과 훈점(訓點)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리고 '부산 왜관에 관련된 한국어학습과 한국고전문학'에 대해 왜관에서 근무하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와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의 경력을 들어 당시 읽었던 한국고전소설을 소개했다. 메이지(明治)시대에는 한국 사정이나 문물을 알리기 위해 신문기자가 주로 그 전달 역할을 했고『춘향전』번역과『구운몽』번안 소설 연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일합방과 식민지 경영을 위한 한국고전문학 번역'과 관련해서 조선연구회 창설과 일본인 한국고전문학 연구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다카하시 도루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다카하시 도루의 경성제국대학 강의 노트 자료를 소개하고 경성대학강의 내용에 대한 이광수의 반론을 소개했다. 그리고 경성 재류 일본인들이 번역 혹은 연구한 한국고전문학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는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한국 고전문학을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줄 것이다.

* 긴키대학교(近畿大學校)/부교수

[주제어] 일본인 한국문학 연구자, 한국고전문학, 아사이 료이, 다카하시 도루, 경성대학, 조선연구회, 이광수, 경성 재류 일본인

# 1. 서론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국고전문학 연구는 시대에 따라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예부터 교류가 있었으며 중국의 한문 서적들이 한반도를 통해 일본에 들어왔다. 처음으로 한국고전이 일본에 들어온 것은 아마도 임진왜란 때로 추정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인이 어떤 식으로 한국고전문학을 접하고 해석해 왔는지 고찰하기로 한다.[1] 메이지(明治)시대 이후에 이루어진 한국고전문학 작품의 번역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있다.[2] 그리고 필자는 한국 고전문학의 정체성이 재도지문(載道之文)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3] 본고에서는 그 성과를 토대로 하되 일본인에 의한 한국고전 연구에 좀 더 초점을 두기로 한다.

우선 제2장 '전쟁으로 인한 한국문학 전래와 화각본(和刻本) 발간'에서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들어온『금오신화』와 그 이후에 유통된『징비록』,『난설헌집』,『삼강행실도』를 소개하고, 그 해석을 위해 필수 교양이었던 주자학과 훈점(訓點)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제3장에서는 '부산 왜관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고전문학'에 대해 서술한다. 왜관에서 근무하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와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의 경력을 들어 당시 읽었던 한국고전소설을 소개한다.

---

1) 한국에서는 일제시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비교적 많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 최혜주(한양대학교),「조선광문회와 재조일본인의 고전 간행을 중심으로」,『제6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고전의 (재)해석과 정전의 형성』(The Reception of Classics and the Formation of Canons in East Asia, 2013, 10, 17.개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3~53쪽.

2) 야마다 교꼬(山田恭子),「메이지기 이후의 한국 고전문학 작품의 일본어 번역 상황(明治期以降の朝鮮古典文學作品の和訳状況)」,『近畿大學 法學』제61권 제2 · 3호, 近畿大學法學會, 2013.

3) 야마다 교꼬(山田恭子),「일본에 있어서 한국 고전문학의 전망과 과제(日本における韓国古典文學の展望と課題)」, 2019년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한국어문학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인문신양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2019년 1월 7일.

제4장에서는 '메이지시대 초기의 한국고전문학 번역'에 대해 살펴본다. 이 시기에는 한국 사정이나 문물을 알리기 위해 신문기자가 주로 그 역할을 했고 춘향전의 번역과 구운몽을 번안한 소설 연재가 이루어졌음을 언급한다.

제5장에서는 '한일병합과 식민지 경영을 위한 한국고전문학 번역'과 관련해서 조선연구회 창설과 일본인 한국고전문학 연구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다카하시 도루에 대해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한일병합 이후의 한국고전문학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특히 다카하시 도루의 경성제국대학 강의 노트 자료에 대해 소개하고 경성대학 강의 내용에 대한 이광수의 반론도 소개한다. 그리고 경성 재류 일본인들이 번역 혹은 연구한 한국고전문학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는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한국 고전문학을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2. 전쟁을 통한 한국문학의 전래와 화각본(和刻本) 간행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많은 조선 한문 서적이 전래되었다.[4] 그리고 나중에 일본식으로 구두점을 찍은 화각본(和刻本)으로 간행되어 읽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금오신화』(1653),『징비록』(1695),『난설헌집』(1711)이다.

이『금오신화』판본은 1592년에 전래된 조선목판본(윤춘년 편)으로 1653년에 일본에서 화각본으로 새겨진 것이다.[5]『징비록』4권 4책은 겐로쿠(元禄) 8년(1695) 1월에 교토에 있는 서점 야마토야 이헤이(大和屋伊兵衛)에 의해 개판되었다.[6] 이 시기에는 이미 조선통신사의 왕래가 있었으므로 조

4) 1592년 이전에는 오우치 씨(大内氏)의 일조무역(日朝貿易)을 통한 서적 유입이 있었다. 渡辺慈,「근대에 있어서의 조선본의 유통 -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近代における朝鮮本の流通 - 日本との関りを中心に)」, 山口県立大學學術情報第14号(大學院論集)通巻第22号, 2021, 77쪽.

5) 邊恩田,「朝鮮刊本『金鰲新話』と林羅山」,『大谷森繁博士古希記念 朝鮮文學論叢』, 白帝社, 2002, 94~102쪽; 早川智美,『金鰲新話 訳注と研究』, 和泉書院, 2009.

선측에서는 이러한 국가기밀에 가까운 내용의 서적 간행에 놀라움과 우려를 느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7]

『난설헌집』 2권 1책은 쇼헤이자카 가쿠몬죠(昌平坂學問所), 아사쿠사 문고(淺草文庫) 소장을 거쳐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2종, 나카야마 시로가 1968년 9월에 동양문고에 기증한 것 1종이 존재한다.[8]

그리고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유교와 관련된 책도 일본어로 번역되어 나왔다. 그것이 바로『삼강행실도』이다.[9]『삼강행실도』는 일본에 들어온 뒤 1630년에는 언해 부분을 삭제하여 한문에다 훈점(訓點)을 단 화각본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화각본을 참조하여 번역본으로 만든 것이 아사이 료이(淺井了意)의『가나본 삼강행실도(仮名本三綱行實圖)』이다.[10] 아사이 료이는 원래 승려 가문에 태어나 박식한 사람이었다. 이는 일본에서 승려가 동아시아 공통적 교양인 주자학의 지식과 한문학의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가르침을 넓히고 그 지위를 높이기 위해 유교의 지식과 교양을 이용했다. 이는 조선의 고전문학 속에 숨어든 사상과도 표면상 일치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번역 작업을 통해 유교 지식을 수용했고, 그것을 바탕으로『대화이십사효(大和二十四孝)』(1665),『본조여감(本朝女鑑)』(1661)[11] 등과 같이 유교적이고 교훈적인 작품을 저술하였다. 두 작품은 원나라 문인 곽거경(郭居敬)이 편찬한『이십사효(二十四孝)』그리고 중국『열녀전』[12]의 번안 작품으로 기타무라 기긴(北村季吟, 1625-1705)의『가나 열녀전(仮名烈女伝)』(1655)과 구로사와 히로

6) 崔官,「壬辰倭乱(文禄の役)と日本近世文學」,『日本近世文學と朝鮮』, 勉誠出版, 2013, 55쪽.
7) 이로 인해 1712년에는 조선 역사본과 문집의 수출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朴鐘鳴,『懲毖錄(東洋文庫357)』, 平凡社, 1979, 313쪽.
8) 山田恭子, 앞의 논문, 참조.
9)『삼강행실도』는 세종16년(1434)에 간행되었고 세종25년(1443)에는 성종언해초간본이 간행되었다. 이후 선조12년(157)에는 선조개역본, 영조2년(1726)년에는 영조개역본이 간행되었다.
10) 金永昊,「浅井了意の『三綱行実図』翻訳 - 和刻本・和訳本の底本と了意」,『近世文芸』 91(0), 日本近世文學會, 2010, 16~29쪽. 아사이 료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 참조. 김영호,『아사이 료이 문학의 성립과 성격(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학술총서 4)』, 제이앤씨, 2012.
11) 일본 고금의 현부와 열녀 85명에 대해 삽회(揷繪)를 넣고 가나로 설명한 책.
12) 전한(前漢) 유향(劉向)에 의해 편찬된 여성의 사전(史傳)을 모은 역사책이자 여성의 이상형을 그린 교훈서.

타다(黒沢弘忠, 1612-1678)의『본조열녀전(本朝烈女伝)』을 본떠서 저술한 것이다. 기타무라 기긴과 구로사와 히로타다는 각각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13]의 조카인 마쓰나가 데이토쿠(松永貞徳, 1571-1654)와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인 하야시 라잔(林羅山)을 스승으로 삼은 사람이다. 이를 통해 당시 임진왜란을 통해서 들어온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유교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주자학 유입은 원나라 승려 이치잔 이치네이(一山一寧, 1247-1317)가 주자의『사서집주(四書集注)』를 가져 온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임제종(臨済宗) 승려 기요 호슈(岐陽方秀, 1361-1424)가『주서집주』에 훈점을 찍었고, 손제자이며 명나라에 7년간 수업한 게이안 겐주(桂庵玄樹, 1467-1427)가 그 훈점을 전하였다. 뒤에 임제종(臨済宗) 승려인 난포 분시(南浦文之, 1555-1620)가 그 훈점을 개량하여 '문지점(文之点)'으로 대대로 전해 왔다. 이 문지점은 조사(助詞)에 해당되는 한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한자를 읽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14] 이 외에는 명나라 귀화인의 전수도 있었다. 명나라 유민인 고우카 유켄(江夏 友賢, 1538-1610)은 역학(易學)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로 사쓰마번 (薩摩藩)을 섬겼다고 전해진다.

이렇듯이 일본에서의 주자학 수용은 먼저 선승(禪僧)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쳐 조선 문학작품이 화각본과 번역본 간행으로 대중화되어 갔다. 이 시기에 수용된 고전 서적은 한문 또는 한문에 언해를 단 화각본이었지만 18세기에 들어서 한글 소설도 읽히게 되었다.

---

13)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 하리마국(播磨国) 미키(三木)에서 태어나 귀족인 레이제이(冷泉) 가문 출신. 임제종(臨済宗) 쇼코쿠지(相国寺)의 승려. 정유왜란 때 일본에 잡혀 온 강항(姜杭)과 교류가 있었던 인물이며 강항과의 교류를 통해『사서오경왜훈(四書五經倭訓)』을 저술했다. 그때까지 오산승(五山僧) 사이에서 교양의 일부분이었던 유학을 체계화하여 교토학파로 독립시켰다. 주자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양명학도 수용했고 불교를 배척하지도 않았다. 제자로 유명한 하야시 라잔(林羅山)·나바갓쇼(那波活所)·마쓰나가 샤쿠고(松永尺五)·호리 교안(堀杏庵)은 세이몬(惺門) 사천왕(四天王)이라 불렸다.

14) 스즈키나오지(鈴木直治),『중국어와 한문: 훈독원칙과 한어의 특징(中国語と漢文: 訓読の原則と漢語の特徴)』(중국어연구학습쌍서12), 光生館, 1981, 61~85쪽.

## 3. 부산 왜관의 한국어학습과 한국고전문학

부산 왜관에 거주하던 쓰시마 번(対馬藩) 사람들은 무역과 외교를 위해 한국어 학습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그 학습과정에서 한글 소설을 읽게 되었다.

당시 한국어에 능숙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와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를 들 수 있다. 먼저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의 생애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92년 시가 현(滋賀県)에서 탄생. 원래 의사였지만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15]의 추천으로 우수한 인재를 찾고 있던 쓰시마 번(対馬藩)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된다.

1702년 참판사도선주(参判使都船主)로서 처음 도한. 귀국 후 한국어를 배운다.

1703년 다시 도한. 부산 왜관에 2년간 체재하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

1720년 쓰시마 번에 '한어사(韓語司)'[16] 성립계획안을 제출. 1710년대에 존재했던 우수한 역관도 고령이 되었고, 당시 한국어회화는 할 수 있어도 읽기와 쓰기의 양쪽을 할 줄 아는 자가 세 명밖에 없었다.[17]

1729년 이전에는 조닌(町人)출신자이자 세습적 무역종사들이 상업회화를 중심으로 하여 사숙(私淑)하면서 한국어를 배웠다.

1729년 이후에는 한어사를 설치한다. 주자학과 중국고전학 등의 학문적 소양과 예의에 관한 매너 등 체계적인 한국어 한국문화를 습득. 『숙향전(淑香伝)』, 『이백경전(李白瓊伝)』 등의 조선소설을 필사했다는 기록이 있다.[18]

---

15) 기노시타 준안(1621-1699)은 마쓰나가 샤쿠고(松永尺五)의 제자이자 후지와라 세이카의 손제다가 된다.

16) 한어사란 한국어 역관(朝鮮語通詞)의 양성소이며 관립 어학학교에 해당한다.

17)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한학생원임용장(韓學生員任用帳)」(1720)에 의한다. 雨森芳洲編著,『芳洲外交関係資料 · 書翰集』(関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資料集刊11-3 雨森芳洲全書3), 関西大學出版部, 1982. 당시의 역관 인원과 실력 부족은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책 홍계희에 관한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란다. 程永超,『華夷変態の東アジア』, 清文堂出版, 2022.

18) 田川孝三,「対馬通詞小田幾五郎と其の著書」,『書物同好會冊子』第11号, 書物同好會, 1940, 519쪽.

이 연보를 보면 일본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글 소설을 읽게 된 것은 1729년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왜관에서의 한국어 학습은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 1754-1831)[19]가 이어받게 되었다. 그의 저작과 한국어 학습에 사용된 한국 고소설에 관해 살펴보자.

15세기경부터 시작된 쓰시마 무역 특권상인 육십인(六十人) 집안이자 육십인 상인(六十人商人)으로 불렸던 오다 도하치로(小田藤八郎)의 아들이다. 12세 무렵 조선에 건너갔으며 왜관에서 통사로 활동하면서『상서기문(象胥紀聞)』(1794)[20],『북경노정기(北京路程記)』(1804)[21],『초량화집(草梁話集)』(1825)[22],『통역수작(通訳酬酢)』(1831) 등의 저술을 남겼다.

1794년에 저술한『쇼쇼기분(象胥紀聞)』은 조선 사정에 관한 책이며 역세(歷世), 조의(朝儀), 인물, 관제(官制), 호적(戶籍), 문예, 무비(武備), 음식(飮食), 雜聞(잡문) 등을 기록한 책이다.『쇼쇼기분』잡문(雜聞)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고소설 이름이 나온다.

한국소설 :『장풍운전(張風雲伝)』,『구운몽(九雲夢)』,『최현전(崔賢伝)』,『장박전(張朴伝)』,『임장군충렬전(林将軍忠烈伝)』,『소대성전(蘇大成伝)』,『소운전(蘇雲伝)』,『최충전(崔忠伝)』

중국소설의 한글 번역 책 :『사씨전(四氏伝)』,『숙향전(淑香伝)』,『옥교리(玉嬌梨)』,『이백경전(李白慶伝)』,『삼국지(三国志)』[23]

---

19) 오다 이쿠고로에 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고하기 바란다. 허지은,「쓰시마 朝鮮語通詞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의 생애와 대외인식 -『通譯酬酢』을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30호, 동북아역사재단, 2010. 가와바타 치에(川端千恵),「対馬藩朝鮮語通詞の朝鮮認識 - 大通詞小田幾五郎を中心に」,『文化交涉 東アジア文化研究科院生論集』1, 2013. 기시다 후미타카(岸田文隆),「対馬宗家文書朝鮮語ハングル書簡類の解読作業について」,『국어사연구』제18호, 국어사학회, 2014. 사카이 마사요(酒井 雅代),「近世史部會 近世後期における対馬藩朝鮮語通詞の活動 :『通訳酬酢』を中心に」, 日本史研究(632), 日本史研究會, 2015. 小田幾五郎, 田代和生,『通訳酬酢』, ゆまに書房, 2017.

20) 도쿄국립박물관 디지털 라이브러리(東京国立博物館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자료 번호 QA-810.

21)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문학부(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文學部) 소장 오구라분고본(小倉文庫本) 이미지.

22) 安彦勘吾,「草梁話集」,『帝塚山短期大學紀要. 人文 · 社會科學編』26, 帝塚山短期大學, 1989, 69~93쪽.

23) 자료명은 각주 20에 있는 도쿄국립박물관 디지털 라이브러리 소장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 작품 중에『최충전』에 실린 최치원 부자 이야기라든가 병자호란 이야기를 서술한『임장군충렬전』등 조선과 중국의 역사와 관련된 서적이 눈에 띈다. 그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만이 아니라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알기 위해 이러한 소설들을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무역과 외교를 담당했던 쓰시마 번 상인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 4. 메이지시대 초기의 한국고전문학 번역

메이지시대 초기에는 국교를 둘러싸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고전문학이 번역되었다. 주로 1876년 조일수호조약(朝日修好条約)이 체결된 이후 부산에서 간행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증가하기 시작했던 도한 일본인들에게 조선 사정과 문물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번역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1881년 8월에 일어난 구포사건(龜浦事件)[24]이나 1882년 7월 23일에 발생한 임오군란 등 당시 불안한 사회정세로 인해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과 관련이 있다.[25]

부산에서 신문기자 겸 한방약 중개인을 하던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 1861-1926)[26]는 구포사건에 휘말려 구치소에 투옥된다. 쓰시마 번(對馬藩) 의사 가문에 태어나 소년기에는 왜관에 머물렀던 도스이는 당시 조일간의 정세를 걱정하여 1881년 9월 17일 오사카 아사히신문 지면상에 경고를

『사씨전(四氏傳)』는『사씨남정기』,『이백경전(李白慶傳)』은『이린전(李麟傳)』을 가리킨다. 조희웅,『고전소설 연구자료 총서 I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218쪽, 515쪽.『泗氏傳』『李白瓊傳』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韓國 古小説 研究』, 경인한국학연구총서 81, 景仁文化社, 2010, 126쪽.

24) 구포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上垣外憲一,『ある明治人の朝鮮観』, 筑摩書房, 1996; 上垣外憲一,「半井桃水に見る明治日本人の朝鮮観」, 도쿄대학 박사학위논문, 1996, 74~82쪽; 李昇燁,「植民地・勢力圏における「帝国臣民」の在留禁止処分:「清国及朝鮮国在留帝国臣民取締法」を中心に」,『人文學報』106,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15, 23~52쪽.

25) 야마다 교꼬(山田恭子), 앞의 논문, 218~222쪽 참조.

26) 사쿠라이 노부히데(櫻井信栄),「나카라이 도스이『계림정화 춘향전』에 대하여」(『일본학』31, 일본학회, 동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참조.

담은 내용을 '도스이치인고(桃水痴人稿)'라는 필명으로 '부산항 황류통신(釜山港花柳通信)' 제2보에 기고했다. 또 1882년 6월 25일부터『계림정화춘향전(雞林情話春香伝)』을 오사카 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에 게재했다. 이후 1894년(메이지 27년) 7월 25일부터 1895년(메이지 28년) 4월 17일에 걸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도쿄 아사히신문 기자인 고미야마 덴코오(小宮山天香, 1855-1930)가『구운몽(九雲夢)』번안소설『무겐(夢幻)』을 게재했다.

한편, 1882년 오사카 아사히신문이 메자마시 신문(めざまし新聞)을 인수하여 도쿄 아사히신문이 간행되었는데, 고미야마 덴코오(小宮山天香)[27]는 1894년 9월 18일부터 1895년 5월 28일까지『구운몽』의 번안소설『무겐(夢幻)』을 도쿄 아사히신문에 게재하였다. 조선에 대해 일본인에게 알리면서 신문 발행 부수를 늘리는 역할을 했다.

나카라이 도스이는 같은 쓰시마 번 출신인 대중 소설작가(戯作作家) 소메자키 엔보(染崎延房, 1818-1868)와의 인연으로 신문 연재를 시작했다.『계림정화춘향전』은 당시 조선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오사카 상인과 부녀자를 포함한 신문 독자들에게 널리 읽혔다.[28] 도스이는 '도스이 야사(桃水野史)'라는 필명을 쓰면서 자신이『계림정화춘향전』의 작자임을 암시하였다. 메이지시대 이전에는 연애소설이나 세태소설을 쓰던 희작가(戯作者)가 본명을 밝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가 도쿄에 상경하여 동향 소설작가(戯作作家)이자 2대 다메나가 슌수이(2代 爲永春水)인 소메자키 엔보(染崎 延房)를 만나 도스이(桃水)라는 필명을 쓰게 된 것도 당시 희작가의

27) 별명은 소엔(素園). 고미야마 덴코오에 관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小宮山天香,『新編黄昏日記』, 駸々堂 1885; 小宮山天香 · Erckmann Emile · Chatrian Alexandre,『斷蓬奇緣 慨世史談』, 鳳文館, 1887(복각판 人間文化研究機構国文學研究資料館 2012); 小宮山天香 · Shakespeare William · 河島敬蔵,『羅馬盛衰鑑 沙吉比亜戯曲』, 大空社, 1999; 木戸清平,「新資料による小宮山天香の研究」,『明治大正文學研究』(12), 1954-04. 岡本聰子,「一葉と小宮山天香 :〈無題十〉の作者をめぐって」,『會誌』32-10, 日本女子大學, 1981-09; 大西仁,「小宮山天香『聯島大王』論: 明治二十年代における主体的日本人男性像の形成」, 日本文藝學(48), 2012-03.

28) 染崎延房과 도스이의『춘향전』번역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 참조. 야마다 교꼬, 앞의 논문, 220~222쪽; 야마다 교꼬(山田恭子),「『春香伝』の日本的改変について」,『近畿大學法學』2 · 3号, 近畿大學法學會, 2010, 681~682쪽.

관습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메노모리 호슈 시절 이래 왜관에서 체계적인 한국학습을 하게 되었고, 한국어 교과서로 한국 고전소설이 읽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를 배워온 도스이가 이미『춘향전』을 읽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을 발휘하여 고소설을 소개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메이지 초기의 번역은 한국 고전문학 연구라기보다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서 오는 고전문학 작품 소개라 하겠다. 특히 정치 기자이기도 했던 고미야마 덴코오가『구운몽』과 같은 주인공의 애정 편력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깨달음을 그린 작품을 소개한 것은 문학 연구가 아니더라도 문학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을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였다. 더욱이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에 이런 연애소설을 골라 번역한 것은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5. 한일병합과 식민지 경영을 위한 한국고전문학 번역

### 1) 조선연구회 창설과 회원들의 특징

한일병합 과정과 더불어 일본에서는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계기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었다. 이는 일본이 한국경영을 도모하는 부산물로서의 조선고전문학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큰 역할을 한 조직이 바로 조선연구회였다. 1902년 1월 경성에서 조선연구회가 발족되었지만 같은 해 9월『한국연구회담화록(韓国研究會談話録)』4호를 끝으로 중단되고 만다(鮎貝房之進,『漢文學』).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은 한일병합 이후인 1910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다음은 '조선연구회 창설 취지서(朝鮮研究會創設趣旨書)'의 일부이다.[29]

'조선의 인문(人文)을 연구하고 풍속, 제도, 구관(舊慣), 전례(典例)를 조사함으로써 지도계발(指導啓發)의 재료로 유용하게 쓰는 것은 지금 시대의 요구이다. 사교(社交)를 조리(調理)하고 사회 개선을 기도(企圖)하여 고상한 취미를 가하고 관유(寬裕)한 함흥(咸興)을 부여(附與)하는 것은 오늘에 있어서 필연적인 요구이다. 조선연구회는 이 요구를 향하여 성실하게 공헌하기 위해 창설한 것이다'[30]

조선연구회 회원들은 당시 서울(京城)에 있었던 인물로 창립되었고, '조선연구회 창설 취지서(朝鮮研究會創設趣旨書)'에 기록된 평의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취조국 촉탁(朝鮮總督府取調局囑託) 혼마 규스케(本間九介)[31]

동양협회 분교장(東洋協會分校長)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 1674-1918)[32]

조선총독부 통역관(朝鮮總督府通訳官)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741)[33],

후치가미 데이스케(淵上貞助)[34]

---

29) 大村友之丞編,『角干先生實記 看羊録 東京雜記(古書珍書刊行 第一期第一輯)』, 朝鮮研究會, 1911. 이 책 후기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

30) "朝鮮の人文を研究し風俗制度舊慣典例を調査し以て指導啓発の資に供するは方今時代の要求なり. 社交を調理し社會の改善を企図し高尚なる趣味を加へ寛裕なる成興を附興するは今日に於ける必然の要求なり. 朝鮮研究會は此の要求に向て誠実に貢献せんが為めに創設したものなり." 야마다 교꼬(山田恭子),「明治期以降の朝鮮古典文學作品の和訳状況」, 224~225쪽 참조.

31) 당시 조선 사회를 보면서 저술한 책으로 혼마 규스케(本間九介)의『조선잡기(朝鮮雜記)』(1894)가 있다. 상세내용은 다음 책을 참조. 크리스토퍼 W.A. 스필먼(クリストファー・W・A・スピルマン) 해설,『朝鮮雜記: 日本人が見た1894年の李氏朝鮮』, 祥伝社, 2016.

32) 가와이 시타로(河合鉀太郎),「문학박사 가와이 히로타미 소전(文學博士河合弘民小傳)」,『東洋時報』, 東洋協會, 241号. 가와이 히로타미는 도쿄제국대학 문과를 졸업하고, 1908년에 동양협회 전문학교 경성분교(東洋協會專門學校京城分校)의 교두(教頭)로 재직하였다. 조선 재류 기간에 조선사 특히 재정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였다. 현재 그의 장서는 가와이문고(河合文庫)로 교토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교토대학 귀중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참조.

33) 조선어학자. 쓰시마 이즈하라(厳原) 출신. 1894년 조선영사관 서기생(書記生). 조선총독부 통역관. 조선 고서적 수집에 힘을 기울였고 저서에는『在山楼蒐書録』,『古鮮冊譜』등이 있다. 공익재단법인 동양문고(公益財団法人 東洋文庫) 사이트 참조. 白井順,『마에마 교사쿠의 학문과 생애(前間恭作の學問と生涯) 35-日韓協約の통역관 조선 서지학의 개척자(日韓協約の通訳官 朝鮮書誌學の開拓者)』, 風響社, 2015. 규슈대학(九州大學) 부속도서관 규다이 컬랙션(九大コレクション)에『마에다 교사쿠 구장 서간집(前間恭作旧蔵書簡集)』이 공개되어 있다.

조선통신사장(朝鮮通信社長) 기쿠치 겐죠(菊池謙讓, 1870-1953)[35]

경성공소원 부장 판사 법학사(京城控訴院部長判事法學士) 미야게 조사쿠(三宅長策)[36]

조선총독부 중학교 교유 문학사(朝鮮總督府中學校教諭文學士) 히로타 지키사부로(廣田直三郎, ?-1943)[37]

조선총독부 사무관 문학사(朝鮮總督府事務官文學士)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38]

한성고등학교 학감 문학사(漢城高等學校學監文學士)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678-1967)[39]

조선총독부 철도국 통역관(朝鮮總督府鉄道局通訳官) 후쿠다 간타로(福田幹太郎)

동양협회학교 강사(東洋協會學校講師) 아유카와 보노신(鮎川房之進, 1864-1946)[40]

동양협회학교 주간(東洋協會學校主幹) 아오야기 쓰나타로(青柳綱太郎, 1877-

---

34) 淵上貞助,「京城本町通の道路拡張に就て」,『朝鮮』43, 조선총독부, 1911, 48~49쪽; 盧思慎,『新增東国輿地勝覽』, 京城: 淵上貞助藏版, 淵上商店, 1903 등에서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다.

35) 기쿠치 겐죠(菊池謙讓)는 조선통신사장(朝鮮通信社長), 이왕직 편찬위원(李王職編纂委員) 청년문학회 회원(青年文學會會員)을 역임했다. 德富蘇峰記念館 사이트 기쿠치 겐죠 항목 참조. 저서로『朝鮮諸国記』(大陸通信社, 1925) 등이 있다. 伊藤隆 · 滝沢誠 監修,『明治人による近代朝鮮論影印叢書』, ぺりかん社, 1997 참조.

36) 생몰년 미상. 三宅長策,『俳畫の鑑賞』, 畫報社, 1931.

37) 廣田直三郎,『寒燈夜話』, 廣田直三郎, 1915. 시바우라 공업대학(芝浦工業大學) 관련 사이트 시바우라 천도공학 갤러리(しばうら鉄道工學ギャラリー) 도쿄 철도중학 약년표(東京鉄道中學の略年表)에 1931년 도쿄 철도중학(東京鉄道中學) 교장 '히로타지키사부로(広田直三郎) 5대 취임'이라는 글이 있다.

38) 저서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오다 쇼고(小田省吾),『조선일반사(朝鮮一般史)』, 경성제국대학, 출판연도 미상.『조선교육제도사(朝鮮教育制度史)』, 발행처 출판년도 미상. 오다 쇼고 · 어윤적(魚允迪) 합저(合著),『조선문묘급승무유현(朝鮮文廟及陞廡儒賢) : 부조선유학년표(附朝鮮儒學年表), 조선유학연원보(朝鮮儒學淵源譜)』, 京城(경성) : 조선사학회(朝鮮史學會), 1924.

39) 일본 니이가타 현(新潟県) 출신. 1903년 대한제국정부 초빙으로 시데하라 (幣原坦) 후임자로 관립중학교 교사가 된다. 조선의 풍속 조사를 하면서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조선의 문헌 수집을 진언하여 채용되었다. 1911년 경성고등학교 교유가 되고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종교 조사 및 도서 조사의 촉탁을 받았다.

40) 센다이 번(仙台藩) 출신. 1884년 관비유학생으로 도쿄외국어학교 조선어학과 입학. 1894년에 조선에 건너가 서울의 사립학교 다섯 곳의 창설 책임자가 된다. 1946년 귀국 도중에 하카타(博多)에서 중풍으로 82세로 사망했다.

1932)[41]

동양협회학교 간사(東洋協會學校幹事) 이이즈미 료조(飯泉良三)[42]

동양협회학교 동(東洋協會學校仝) 오무라 도모노조(大村友之丞)[43]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1911년 오무라 도모노죠(大村友之丞)에서 주간을 이어받은 아오야기 쓰나타로(青柳綱太郎)이다. 그는 1912년부터 1916년에 걸쳐『조선연구회고서진서(朝鮮研究會古書珍書)』를 편집 발간했고 많은 고전작품도 번역했다. 그런데 그가 편집한『조선연구회고서진서』제2기 5집『소화외사 하(小華外史 下)』에 수록된 제사 관련 기사를 보면 "번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조선시대를 통해서 중요했던 제사에 관한 내용이 도외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연구회 창설 취지서에서 평의원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또한 조선연구회와 관련이 있는 중요 인물이다. 그는 원래 도쿄 아사히신문사 기자였고 1907년에 조선에 건너온 인물이다. 기쿠치 겐죠(菊池謙讓), 오무라 도모노죠(大村友之丞)와 조선연구회 창설에 참가했으며, '대개 국가 민족의 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민속의 문학을 아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며 조선연구에 힘썼다.[44] 그러나 그의 목적은『조선문학걸작집(朝鮮文學傑作集)』(1924)에 서술되어 있듯이 한일동화(韓日同化)를 강하게 의식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에 간행한『조선문화사론(朝鮮文化史論)』,『통속조선문고(通俗朝鮮文庫)』,『선만총서(鮮滿叢書)』등은 모두 식민사관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민지 경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1926년부터 1945년까지는 시가나 고려 한문학 소개 외에는 이미 번역된 기존 작품을 번안하였다.

41) 언론인, 조선사학자. 1903년에 조선에 건너가 한국궁내부(韓国宮内府)에서 조선사편수직(朝鮮史編修)을 맡았다. 1912년부터 조선연구회를 주재하고 1917년 경성신문을 발간하여 사장이 되었다. 1932년 56세로 사망. 사가 현 출신 도쿄전문학교(현 와세다 대학)를 졸업했다. 저작에「조선통치론」,「조선문화사」등이 있다.

42) 이이즈미 료조는 남양협회(南洋協會) 상무이사를 맡은 인물이다. 저술로 다음 복각판 책이 있다. 鶴岡一雄,『アジア學叢書 347卷: 標準マライ語文法』, 大空社出版, 2021. 초판은 남양협회에서 1943년에 출판되었다.

43) 동양협회학교 간사 오무라 도모노조는 1911년에 아오야기 쓰나타로와 주간(主幹)을 교대하고 있다.

44) 細井肇,「朝鮮文學傑作集の巻頭に題す」,『朝鮮文學傑作集』, 奉公會, 1924, 2~6쪽.

### 2)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한국 고전문학 연구

한국 고전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일본인이 바로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1967)[45]이다. 이 시기의 조선연구는 다카하시 도루의 문학 연구를 포함하여 매우 정치적이거나 식민사관에 영향을 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다카하시는 1902년에 도쿄제국대학 한문과를 졸업했다. 졸업 논문은「한역을 비판하고 네모토 박사의 역설을 언급한다(漢易を難して根本博士の易説に及ぶ)」라는 제목이다. 같은 해에 큐슈일보(九州日報)의 주필이 되어 하카타로 이사했다. 그리고 1919 년에 학위논문「조선의 교화와 교정(朝鮮の教化と教政)」을 제출하고 문학박사가 되었다. 그는 한국문학 연구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요컨대 정치상의 의미로 조선문학 연구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그 아취와 특색을 널리 소개하는 데 힘쓰고 싶다는 것이다.[46]

> 이야기는 사회 생활의 정수적 축도(精髓的縮圖)로 (중략) 게다가 그 풍습을 대표하는 곳의 정신을 간취한다. 그리하여 그 사회를 통제하는 곳의 이상에 귀납하여 비로소 사회 연구의 일을 잘 마칠 수 있다고 한다. 이 사회정신과 이상을 완전히 발견하고, 이 강(綱) 중에 대강(大綱)을 들면 위정자와 사회 정책자의 경영에 막대한 기여가 될 것이다. (중략) 나는 작년부터 위와 같은 목적으로 조선의 이야기와 속담을 수집하고 축적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47]

그는 조선고전문학 연구를 위해 자료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성공적

45)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도도 아유미(道堂あゆみ)의「다카하시 도루와 조선(高橋亨と朝鮮)」과 일본 철리대학교 편『조선학보(朝鮮學報)』48집에 수록된「다카하시도루 선생 연보(高橋亨先生年譜略)」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져 있다. 川原秀城 · 金光来 編譯,『다카하시 도루 조선유학논집(高橋亨 朝鮮儒學論集)』, 도쿄 : 지천서관(智泉書館), 2011. 서문 vii쪽을 참조.

46) 高橋仏焉,「韓国の文學 春香伝の概説」,『太陽』第12巻 第8号, 太陽, 1906.6, 참조.

47) 高橋亨,『朝鮮の物語集附俚諺』, 日韓書房, 1910,「自序」1, 3~4쪽 참조.

이지는 못했다. 그는 1910년 이후 한국의 풍속 조사에 착수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생한 것은 다음에 글에서도 나타난다.

> 다이쇼(大正) 3년(1914) 6월에 조선의 속담집을 발간했는데 본업인 조선학 연구자료를 충분히 얻지 못하여 좀처럼 진전이 없다. (중략) 조선의 상류층 양반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쉽게 책을 매각하는 일이 없다.[48]

다카하시가 유교가 아닌 불교 연구를 우선한 것도 이러한 유교 자료 수집에 장애가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1926년에 그는 신설된 경성제국대학교 교수[49]가 되어, 고등관 2등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법문학부 조선어문학 제1강좌 담당자로 활약한다. 또한 그는 다른 학자들과 달리 조선고전사상 연구도 시도했다. 다음 장에서 한일병합 이후의 조선고전문학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 6. 한일병합 이후의 한국고전문학 연구

### 1) 다카하시 도루의 경성제국대학 강의와 노트 자료

한일병합 이후의 이루어진 한국문학 연구를 보면 우선 일본 학자로서는 다카하시 도루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최근에 와서야 그 전모를 알 수 있게 된 자료가 있다. 『사제(私製) 다카하시 도루 조선사상 자료(高

48) 高橋亨, 『李朝仏教』, 寶文館, 1929, 緒言 2~7쪽 참조.

49) 당시 조선에서 간행된 잡지는 『朝鮮』, 『朝鮮及満州』, 『文教の朝鮮』, 『青丘學叢』, 『経學院雜誌』, 『儒道』 등이 있어 경성제국대학 교원인 다카하시 도루와 후지쓰카 치카시(藤塚鄰) 등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李曉辰, 「京城帝国大學における韓国儒教研究活動」, 『東アジア文化交涉研究』 권 8, 2014, 181-196쪽; 이효진, 『京城帝国大學の韓国儒教研究 : 「近代知」の形成と展開』, 勉誠出版, 2016.

橋亨朝鮮思想資料) 전 66권』이 바로 그것이다. 다카하시 도루가 여타 문학자들과 다른 지점은 문학은 물론 조선사상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다는 점이다.[50] 특히 그가 경성대학에서 강의를 맡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다카하시도루 경성대학 강의 자료 및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사제(私製) 다카하시 도루 조선사상 자료(高橋亨朝鮮思想資料) 전 66권』은 쇼와 2년부터 11년까지(1927-1936)의 자료이며, 현제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문학부 한국조선 도서실(東京大學 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 · 文學部 圖書室)에 그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노트 원본은 원래 고(故) 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선생이 소장했다가 도쿄대학교 가와하라 교수가 빌려가 복사한 것이다. 그리고 사이타마 대학의 권순철 교수에 의해 자료 번각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 『완본 다카하시 도루 제국대학 강의 노트』[51]로 간행되었다. 원본은 쉽게 볼 수 없으나 현제 도쿄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복사본 총 66권의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사상 및 신앙사(朝鮮思想及信仰史)』 1-6(1927)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 기고(起稿) 7-14 강본(講本)[52] 15-34 (1927-1930)

『이퇴계여이율곡(李退溪與李栗谷)』 35-38 (1930)

『동양도덕(東洋道德)』 39 (1931)

『조선사상사개설(朝鮮思想史概說)』 40A-40B (1930)

『조선사상사(朝鮮思想史)』 강본 42

『조선사상사개설(朝鮮思想史概說)』 강본 41, 43-52 (1930)

『이학파지유학(異學派之儒學)』 52 (1930-1931)

50) 다카하시는 장지연과 1915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매일신보에서 논쟁을 했다. 김우형, 「장지연(張志淵)의 조선유학사 이해 과정과 그 특징 -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와의 논쟁과 상호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제190집, 2020, 271-295쪽.

51) 高橋亨, 권순철 편, 『完本 高橋亨京城帝國大學講義ノート〈朝鮮儒學史編〉〈朝鮮思想史編〉』 全2卷, 三人社, 2021.

52) 강본은 기고한 원고를 발전시킨 것이다. 강본 중에도 일부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조선이학파지연구(朝鮮異學派之研究)』 54-59

『조선이학파지유학(朝鮮異學派之儒學)』 강본 60-63 (1936)

『지나조선유학철학(支那朝鮮儒學哲學)』 64

『지나조선유학사(支那朝鮮儒學史)』 65-66

이 내용을 보면 다카하시가 얼마나 조선사상에 대해 깊이 연구를 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연구는 비록 식민사관에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연구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견지 차이로 때로는 논쟁에 이르기도 했다.[53]

또한 다카하시 도루 강의 노트는 원래 전 110권으로, 사상자료 66권과 문학 강의 노트 4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문학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전모가 밝혀져 있지 않으며 그 제목만 알 수 있다.[54] 문학 강의 노트 원본 44권을 소장하고 있는 전 연세대학교 이윤석 교수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55]

〈문학 관련 강의 노트 44책 (1931-1937)〉

朝鮮上代文學 14책: 자료 7책, 강본 7책

朝鮮近代文學 13책: 자료 9책, 강본 4책

민요 관련 14책: 조선 민요연구 3책

탐라 민요 완본(耽羅民謠完本) 2책

조선민요 7책 (2~8,제1책 없음)

小品 解說 1책

조선민요 講本 1책

---

53) 김우형,「장지연의 조선유학사 이해 과정과 그 특징 - 다카하시 도루와의 논쟁과 상호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 」,『동방학지』 제19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54)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 이윤석,「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의 경성제국대학 강의노트 내용과 의의」,『동방학지』 제17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55) 노자키 미쓰히코(野崎充彦) 교수가 2019년 10월 6일 제70회 천리대학조선학회에서 발표한 원고인「高橋亨の京城帝大文學講義ノートについて」에 의하면 다카하시의 문학 강의노트 44권 번각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朝鮮文學槪論 2책: 2~3 (제1책 결본)

朝鮮文學演習參考 1책[56]

다가카하시는 1926년 신설된 경성제국대학교수가 되어 법문학부 조선어학문학 제1강좌를 담당하게 된 이후 1939년 퇴임할 때까지 많은 조선인 제자를 지도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친 내용은 주로 유학과 관련된 한문으로 추정된다.[57] 이에 대해서는 이광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다.

年前 京城帝大 朝鮮文學科에서는 朝鮮文學 演習用 敎科書로『擊蒙要訣』을 使用하엿다고 한다。이는 그 大學 朝鮮文學科의 主任되는 某 敎授의 選擇이니 가장 權威 잇는 選擇이라야 할것이다。그러나 不幸히 淺見寡聞한 나로는『擊蒙要訣』이 朝鮮文學이란 말은 奇想天外로밧에는 아니들린다。(중략) 거긔에서 가르칠 거슨 新羅 鄕歌、時調、春香傳、現代 朝鮮作家의 作品일 것이다。(중략) 朝鮮文學이란 무엇이뇨『朝鮮文으로 쓴 文學이다!』[58]

이광수의 이 말은 당시에는 유명했던 일화였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듯하다. 비슷한 이야기는 김사엽의『조선문학사』에도 실려져 있다.

그 언제 누구든가가 京城大學 朝鮮語文學科에서 擔當 日人 敎授가 演習用 敎材로서『擊蒙要訣』을 使用하고 있음을 痛擊하고서 이르기를「朝鮮文學을 爲해서는 太學舘은 이야기책 보는 村家 舍廊만 못하고、太提學、副提學은 무당과 妓生만 못하였던 것이다。朝鮮文學이란 무엇이뇨? 朝鮮文으로 쓴 문학이다。」라

56) 이윤석, 앞의 논문, 73쪽.

57) 이점은 경성제국대학 교직시절은 물론이고 패전이후 오타니 모리시게 교수의 인터뷰 말에서도 확실하다. 임경화,「다카하시 도루의 '조선문학' 인식: '조선어' 문학의 위치에 주목하여」,『東方學志』제186집, 2019, 266쪽.

58) 李光洙,「朝鮮文學の槪念(조선문학의 개념)」, 이광수,「조선문학의 개념」,『사회공론(四海公論)』제1권 제1호, 사회공론사, 1935, 30 · 34쪽(한국문화간행회,『한국잡지총서(韓国雜誌叢書) 8 문학 · 삼사문학 · 시원 · 사회공론』, 보림출판사, 1982 수록).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 박광현,「경성제대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 연구 -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를 중심으로」,『동악어문학』41, 동악어문학회, 2003.

> 고 빈정대던 것이 생각나고니와、나 역시 朝鮮文學科에 在籍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大學 三年間 講義 받은 것은 退溪、高峯의 四端七情理氣 往復書類의 道學者들 性理論의 講義라든가、弘齋全書、『東人詩話』그밖에 漢詩 作法 等을 敎授받았다。松江의 歌辭나 孤山의 短歌에 對한 렉츄어를 듣고 싶어 入學한 나의 慾望은 한날 無想인냥、언제까지나 귀치 않은 無極太極說에 귀를 기울여야 하였고、그때 詩壇에서는 한창 未來派 슐레아리즘이 議論되고 있을 지음에 나는 敎場 한구석에서 먹다 버린 糟粕과 같은 漢詩의 平仄에 골돌해야 하였으니、至今토록 羊頭狗肉과 같은 엉터리 敎授를 생각하면 苦笑를 금하지 못한다。[59]

김사엽(1912-1992)은 1932년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조선어문학을 전공하였다.[60] 그는 대학에서 이이의『격몽요결(擊蒙要訣)』, 퇴계와 고봉의「사단칠정분리기왕복서(四端七情分理気往復書)」, 정조의『홍재전서(弘齋全書)』, 서거정의『동인시화(東人詩話)』, 주희의「무극태극설(無極太極說)」을 들어야 했고 배운 것이 모두 한문이었다고 술회한다.

1938년에는 다카하시가 아직 재직 중이어서 아마도 그가 직접 가르친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한문 강의에 대해서 쉽게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한국 고전문학에 대다수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고전문학 이해에는 유교를 포함한 중국 한시문 지식이 불가결이기 때문이다.[61] 또한 그 당시에는 신문학의 개념이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고 서구적 근대문학 개념이 일반화된 시기이다. 따라서 학생 입장에서 볼 때 다카하시의 강의가 편향된 내용이었다고 느낀 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

59) 김사엽,『조선문학사』, 서울: 정음사, 1948, 自序 3쪽.

60) 김사엽은 경성대학에서 '이조시대 가요연구'를 했다. 1945년 이후에는 대구사범대 교수, 경북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천리대학 강사, 교토대학 강사, 오사카외국어대학 객원교수, 하버드 대학 옌칭학관 한국지부장,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소장 등을 역임했다. 일본에서 일본국훈사등욱일소수장(日本国勲四等旭日小綬章), 야마가타 반도상(山片蟠桃賞)을 수상하였다. 저서로『김사엽전집』전32권(김사엽전집간행위원회, 2004)이 있다.

61) 최남선은 '문학은 바로 유학(儒學)'이라 말하기도 했다. 소바 기요시(相場清) 역 · 최남선 저,『조선문화연구 조선상식문답(朝鮮文化の研究 朝鮮常識問答)』, 宗高書房, 1965, 102쪽.

다카하시가 경성제국대학에서 맡은 문학 강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선인들의 의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국고전문학의 정체성을 말할 때 중요한 초점이 된다.[62] 그런데 이에 대한 한 해결책이 1940년 임화의「槪說 新文學史(五)」[63]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 『朝鮮文學이란 무엇이뇨、』『朝鮮文으로 쓴 문학이다』고 喝破하였다. 이 말은 分明히 眞實이다. 그러나 萬一 春園의 見解에 따라 우리가 新文學史 以前에 朝鮮文學史를 쓴다면 事態는 우리의 豫期하지 아니한 곳에 結果한다. 三國遺事, 金鰲新話, 燕巖外史, 于先 이程度만 하여도 漢文으로 된 朝鮮人의 作品을 朝鮮文學史에서 除外하기 어려움을 痛感할 것이다. 漢文으로 씨워섰슴에 不拘하고 그內容인 思想 情調 感情이 分明히 朝鮮땅의 것이다." (중략) "端的으로 말하면 朝鮮文學史는 鄕歌로부터 時調 諺文小說 가사창곡에 이르는 朝鮮語文學史를 중심으로 하여 强首, 金大問, 崔致遠으로부터 姜秋琴 黃梅泉 金滄江 등에 이르는 漢文學史의 우리 新文學史를 添加한 三位一體 일 것이다. 그러치 안흐면 朝鮮半島에 사는 數千年間의 歷史를 가진 한 겨레의 文化로서의 文學의 歷史는 期待할 수 업다. 따라서 新文學史와 일반 朝鮮文學의 全史와의 關係는 朝鮮諺文學史, 朝鮮漢文學史, 新文學史라는 圖式으로 表現할 수 잇다.

이것은 한국문학 범위에 고전 국문학과 한문학이 선행한 것임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며 타당한 견해라 할 수 있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카하시가 경성제국대학에서 한 강의는 비록 한문학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한국사상, 문화, 모범적 시문 형식에 관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한국문학의 특징을 논할 때 기초 지식으로 이해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카하시 도루의 고전문학 연구는 조선연구회 아오야기 쓰나타로가『소화외사 하(小華外史 下)』에 수록된 제사 관련 기사에 대해 "번역할 가치가 없다"고 한 태도와

62) 조선시대 고전문학을 논할 때 재도지문(載道之文)이 크게 작용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근대문학은 서양문학에 자극을 받은 어문일치운동(語文一致運動)으로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근대문학 개념이 조선의 문학과 일치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63)『朝鮮新文學史 : 朝鮮日報〈1940年〉人文評論』, 간행처 미상, 도쿄 외국어대학교 소장본, 7쪽.

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목적이 식민사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64]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고 할 수 있겠다.

### 2) 경성 재류 일본인과 한국고전문학

한국고전과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다 경성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한국고전문학과 관련된 인물과 그들의 간행물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5]

| | 인물 | 직업 | 간행물 |
|---|---|---|---|
| 1 |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 房之進) | 언어학자<br>역사학자, 가인 | 「韓文學」1903<br>「洪吉童」1907 |
| 2 | 카나자와 쇼자부로(金沢庄三郎) | 언어학자 | 「南薫太平歌」1899 |
| 3 | 마쓰오 오키치(松尾茂吉) | 경성일보 편집국장 | 「南薫太平歌(1)」1908 |
| 4 |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 동양사학자 교육행정관 | 「韓国文學談」1908<br>「韓国文學談(承前)」1908 |
| 5 | 와다 이치로(和田一郎) | 법학자. 총독부재무국장 朝鮮商業銀行頭取 | 『金鰲新話』1926-1927<br>「東廂記(上 · 下)」1927 |
| 6 | 오카와 시게오(大川茂雄) | 일본 국학자 | 「朝鮮李朝文學年表」1908<br>「춘향전(상 · 하)」1921 |
| 7 | 아소 이소지(麻生磯次) | 일본국문학자 도쿄대학명예교수 경성제국대학교수 일본학사원회원 | 「희곡 춘향전」 1922 |
| 8 | 나가타 오천(中田午川) | 미상 | 「新訳 楊風雲伝(1)」1929 |
| 9 | 다다 마사코모(多田正知) |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수 | 「朝鮮文學史」1929<br>「高麗朝漢文學史」1930 |

64)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인에 대한 시각은 그의 딸 기쿠에(菊枝)가 저술한 책『아카렌가노이에(赤煉瓦の家)』를 참조할 수 있다. 다카하시 도루는 스스로 도라지타령을 부르면서 "애수가 가득한 아름다운 곡조"라고 하는 한편, 조선 민중에 대한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는 조선인을 "진지함이 없고 원래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폄하했다. 그리고 식민사관을 근거로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高橋菊枝,『赤煉瓦の家』, ドメス出版, 1996, 16~17쪽, 176쪽.

65) 관련된 인물과 저술은 다음 책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末松保和編,『朝鮮研究文献目録 : 1868-1945, 単行書篇論文 · 記事篇(東洋學文献センター叢刊影印版, 5,6)』, 汲古書院, 1980.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경성대학교 조선사제이강좌(朝鮮史第二講座) 교수와 일본 학습원대학(學習院大學) 교수를 역임했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1864-1946)은 미야기 현(宮城県) 게센누마 시(気仙沼市) 출신으로 1884년 도쿄외국어학교 조선학과 졸업하였다. 동양역사학, 언어학자, 가인(歌人)으로 호는 가이엔(槐園)이다. 1894년 조선에 가서 경성의 다섯 사립 초등학교 창설의 책임자가 된다. 언어학적 방법으로 고대 조선의 지명, 왕호 등을 고증하여 민속학적 연구에도 힘을 다했다. 그 결과는『잡고(雜攷)』9집에 실려 있어 오늘날에도 우수한 선행연구로 평가받고 있으며, 1931년 5월부터 1938년 5월까지 경성에서 출판되었다. 그가 쓴 문학 관련 저술로는「한문학(韓文學)」[66]과「홍길동(洪吉童)」[67]이 있다. 1918년 매일신보에 조선의 서화를 연재하여 김정희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후에 후지쓰카 다카시(藤塚鄰, 1879-1948)의 김정희 연구에 영향을 끼쳤다.[68]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1872-1967)는 오사카출신의 언어학자로 1898년경에 경성에 유학하여 조선어를 배웠고 동경외국어학교, 천리대학에서 교수로 활약했다.[69] 일본어와 조선어를 대상으로 삼아『일한양국어동계론(日韓両国語同系論)』[70]이나『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71]을 펴냈다. 문학 관련 저술로는「남훈태평가(南薫太平歌)」[72]와『용비어천가』에 관한 논고인「조선의 서적(朝鮮の書籍)」[73]이 있다.

---

66)『韓国研究會談話録』2, 韓国研究會編, 1903.5(復刻版『韓国併合史研究資料17』, 龍渓書舎, 1996, 71~82쪽). 같은 해 현행 표기(新仮名遣)로 인쇄된 것이 잡지『韓半島』1에도 실렸다.『韓半島』1, 韓半島社, 1903.11(復刻版『韓半島』, 壇国大學校附属東洋學研究所編纂, 제이앤씨, 2006, 83~90쪽).

67) 星稀堂主人, 北魯山人,「鳳鳴, 朝鮮小説 洪吉童」,『黒龍』7년 6호, 黒龍會本部, 1907년 10월, 37·39쪽. 星稀堂主人은 누구인지 미상이다. 기타로산진(北魯山人)은 예술가 기타오지로산진(北大路魯山人, 1883-1959)으로 추정된다. 그는 1910년에 조선에 갔으며 조선총독부 경룡인쇄국(京龍印刷局) 서기로 일했다.

68) 이효진, 앞의 책, 67-68쪽.

69) 이효진, 앞의 책, 236쪽.

70) 카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1872-1967),『日韓兩國語同系論』, 三省堂書店, 1910.

71) 카나자와 쇼자부로,『日鮮同祖論』, 刀江書院, 1929.

72) 카나자와 쇼자부로,「남훈태평가(南薫太平歌)」,『朝鮮月報』2, 朝鮮月報社, 1899.11. 金澤庄三郎,『朝鮮書籍目録』, 간행처 미상, 1911. 일본 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朝鮮書籍目録』언어류 41 참조.

마쓰오 모키치(松尾茂吉, 생몰년 미상)에 대해서는 경성일보 편집국장[74]이라는 사실 외에는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에게 보낸 그의 서간이 있을 뿐이다. 마쓰오 이름으로「남훈태평가(1)」이 잡지『조선』[75]에 실렸다.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1870-1953) 오사카출신의 동양사학자이자 교육행정관이다. 조선사를 전공한 역사가이지만 통치행정과 통치교육을 추진한 관료, 교육자로도 알려져 있다. 1882년 하쿠엔쇼인(泊園書院)[76]에서 한학(漢學)을 배웠고 1893년에 도쿄 제국대학 문과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가고시마 고등중학 조시칸(造士館) 교수, 야마나시 현 진조중학교(尋常中學校) 교장, 도쿄고등사범학교 교수, 한국학부학정참여관(韓国學部學政参与官), 문부성시학관(文部省視學官), 제국대학 교수를 역임한 후 1913년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장이 되었고 문부성 도서국장도 겸임했다.[77] 시데하라의「한국문학담(韓国文學談)」[78]을 보면 한문에 비해 국문으로 된 기록이 적다. 또 과거제도, 최치원, 조선 유학의 도통(道統) 등 유교와 문학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또한「조선문학담(承前)」[79]에는 세종(世宗) 28년 이후의 언문 문학에 대해 평민문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춘향전』,『사씨남정기』,『구운몽』,『홍길동전』,『정향전』,『숙낭자전』등의 소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옛날에 한학(漢學)을 하고 지나(支那)의 문물을 습득했듯이 일본어 연구가 성행함에 따라 장차 이 연구로 인해 조선인이 매우 편리함을 얻어 더욱더 문명을 진행시키는 데에 일대계제(一大階梯)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80]라고 하였다.

---

73) 金澤庄三郎,「朝鮮の書籍」,『朝鮮月報』4, 朝鮮月報社, 1900, 50~51쪽. 내용은 용비어천가를 일본어로 초역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디지털콘텐츠 참조.
74) 도쿠토미소호 기념관(徳富蘇峰記念館) 마쓰오 모키치(松尾茂吉) 항목 참조.
75) 마쓰오 모키치,「南薫太平歌(1)」,『조선』1권 4호, 조선총독부, 1908.6. 현재 산일.
76) 하쿠엔쇼인 소장 책은 현제 간사이대학(関西大學)에 있다. 요코야마 슌이치로(横山俊一郎),『泊園書院の人びと: その七百二人』, 清文堂出版, 2022 참조.
77)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는 조선사 전공자이면서 교육에 관한 글도 많이 남겼다.『朝鮮教育論』, 六盟館, 1919(복각판『韓国併合史研究資料』59, 龍渓書舎, 2005).
78) 幣原坦,「韓国文學談」,『東洋時報』119, 東洋協會, 1908, 22~26쪽.
79) 幣原坦,「韓国文學談(承前)」,『東洋時報』121, 東洋協會, 1908.10.20, 29~32쪽.
80) 幣原坦, 위의 책, 32쪽.

와다 이치로(和田一郎, 생몰년 미상) 니이가타 현(新潟県) 출신으로 법학박사이다. 총독부재무국장, 조선상업은행두취(朝鮮商業銀行頭取). 이문회(以文會) 부회장을 역임했으며,[81] 필명은 덴민(天民)이다. 와다 이치로(和田一郎)는 한국에 건너온 후 토지조사사업에 종사했다. 1922년 7월부터 1924년 8월 13일까지 총독부재무국장으로 일했다. 1931년경 조선상엄은행두취를 사직하고 천민산사(天民散史)라는 필명으로『금오신화』[82]를 번역하였다. 그 외에도 이이의「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소개하고,『금오신화』와『동상기(東廂記)』를 번역했다.[83] 저서로는 조선사회와 문화를 소개한 책『朝鮮の匂ひ』[84]가 있다. 일본 센류(川柳)에도 조예가 깊었고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 한국고전문학에도 관심을 가졌던 듯하다.

오카와 시게오(大川茂雄)는「조선이조문학연표(朝鮮李朝文學年表)」[85],「춘향전(상 · 하)」[86] 등을 출판했다. 그는 국학자였지만 한국문학에도 관심이 많았다.「조선이조문학연표」에는 조선시대 문묘나 과거에 관한 글도 포함되어 있다.

아소 이소지(麻生磯次, 1896-1979)는 지바(千葉) 현 출신의 국문학자로 도쿄대학 명예교수, 일본학사원회원이다. 1920년 제국대학 문학부를 졸업 후 조선총독부 편집 서기가 된다. 1922년에「희곡 춘향전」[87]을 창작했다. 1923년 제국대학 대학원 입학. 1925년에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되었다. 1944년 제국대학에 학위논문「근세문학의 지나적 연원과 요미혼 연구(近世文學の支那的原拠と読本の研究)」를 제출하여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49년 도쿄대학 교양학부 교수로 임명되었다.[88]「희곡 춘향전」은 아소가 조선총

81) 당시 있던 유교단체의 하나이다. 다나카 류지(田中隆二),「겸산(兼山) 홍희(洪憙)의 생애와 활동」,『한일관계사연구』(5), 한일관계사학회, 1996, 150~151쪽 참조.
82)『金鰲新話』(『朝鮮』139~143호, 조선총독부, 1926.12~1927.3).
83)『朝鮮』137, 140, 141, 142, 143호, 조선총독부, 1926.10, 1927.1~4. 일본 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참조.
84) 일본 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참조.
85) 오카와 시게오,「朝鮮李朝文學年表」,『国學院雜誌』14-12, 国學院大學, 1908.12, 8쪽.
86) 오카와 시게오,「春香伝(상)」,『朝鮮』75, 1921.4,「春香伝(하)」,『朝鮮』76, 조선총독부, 1921.5.
87) 아소 이소지,「戯曲 春香伝」,『朝鮮』, 89, 조선총독부, 1922, 56쪽.
88) 學習院大學国文學研究室,「麻生磯次博士年譜 · 著作目録(麻生磯次博士追悼)」,『国語と国

독부 편집 서기로 활동했을 때 지은 작품이다. 국문학 전공자였던 그가 조선에서 제일 유명한 고전작품『춘향전』을 희곡으로 번안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나카타 오천(中田午川, 생몰년 미상)의 '오천'은 필명이다. 1930년 12월에 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던 수려선의 역 이름이 오천역(午川驛)이었던 것으로 보아, 지명을 필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저술에『신역 양풍운전』[89]이 있다.

다다 마사토모(多田正知, 생몰년 미상)는 1927년부터 1934년경까지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의 문학사 연구는 고대부터 조선시대 중기까지의 한문학사가 그 중심이 된다. 특히 조선 재류 시절에는「양무제와 조선반도의 문교(梁武帝と朝鮮半島の文教)」[90]를 비롯하여「논설조선문학사(論説朝鮮文學史)」,「조선문학사」,「고려조한문학사(高麗朝漢文學史)」,「목은이색(牧隱李穡)」등 문학사 관련 논고를 학술잡지『사문(斯文)』에 기고하였다.[91] 그러나 귀국 후 조선문학 관련 연구는 중단되었다. 또 다다의「고려조한문학사」저술을 보면 고려의 학제와 최충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 서술했다는 점에서 洪憙의「조선학예사(朝鮮學藝史)」[92]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7.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일본 한국고전문학 연구의 지평과 역사에 대해 통시적으로 서술하였다. 먼저 한국고전서적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임진왜란 이후 일본인이 어떤 식으로 한국고전문학에 접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서

---

文學』57-2, 至文堂, 1980.2, 82-87쪽.

89) 中田午川,「新譯 楊豊雲傳」,『文教の朝鮮』143, 朝鮮教育會, 1929.9, 6쪽.

90) 多田正知,「梁武帝と朝鮮半島の文教」,『文教の朝鮮』50, 朝鮮教育會, 1929.

91) 多田正知 著,『創立二十周年記念誌』, 斯文會長岡支部, 1938.10.

92) 洪憙,「조선학예사」1~15권,『朝鮮史講座』, 朝鮮史學會, 1923-1924.

적은 우선 훈점(訓點)을 단 화각본으로 간행되어 읽기 시작했고 그 훈점은 승려들에 의해 대대로 계승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에도시대에 들어와 주로 왜관에 살던 쓰시마 번 사람들이 한국어 학습을 통해 한글소설을 읽었던 점도 지적했다.

조일수호조약 후에는 거류하는 일본상인과 조선인 사이에서 알력이 생겨 당시의 조선사정과 문물을 알리기 위해 일본 신문 기자들이 한국고전을 소개했다. 한일병합 이후에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조선연구회가 창립되어 식민지경영을 위한 한국고전 서적의 수집과 간행이 잇따랐다. 조선연구회 회원들은 대부분 조선총독부나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그중에서도 한국문학 연구자로 다카하기 도루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1919년 박사학위논문「조선의 교화와 교정(朝鮮の教化と教政)」을 제출하고 "정치상의 의미로 조선문학 연구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명제 하에 한국고전문학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그의 강의 노트를 보면 문학을 비롯하여 종교, 사상,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다. 비록 목적이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였지만 연구에 대한 추구성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문학 강의 노트 44책은 아직 간행되지 않았지만, 사상자료 66권은『완본 다카하시 제국대학 강의 노트(完本 高橋亨京城帝國大學講義ノート)』로 2021년에 발간되었다. 그러므로 다카하시에 대한 평가는 이제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경성제국대학에 고전문학강의에 대한 춘원의 반론이 있음을 제시했고, 신문학과 더불어 정착한 일본 어문일치운동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임화의『개설 신문학사』에는 고전을 포함한 한국문학에 대한 정의로 한문학과 국문문학 모두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경성 재류 일본인과 한국고전문학에 관한 저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들은 모두 학자들이며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다다에 관해서는 그의 저술 내용이 홍희「조선학예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앞으로는 홍의를 비롯하여 송순기[93], 안량[94], 김대준, 조윤제 등 당시 학자와 언론인 및 경성제국대학 관계자였던 조선인들의 한국고전문학을 바라보는 시

각에 대해 일본인 학자와의 차이점이나 영향관계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점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현재 한국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945년 이후 한국고전문학에 관심을 가진 인물은 주로 원래 한국에 거주자였던 일본인들이었거나 1945년 이후 비참한 전쟁 체험을 반성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인과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 의한 고전 작품의 번역이 이루어졌다. 한국고전문학 연구자는 천리대학교 출신이자 다카하시 도루의 제자였던 오타니 모리시게와 손제자였던 오카야마 젠이치로(岡山善一郎), 그리고 중국문학을 기초로 하여 한국고전문학연구로 나아간 노자키 미쓰히코(野崎充彦)가 있다. 특히 현직 연구자는 더 숫자가 적어서 필자와 다쓰노 사요(龍野沙代)가 있을 뿐이다.[95]

93) 송순기(宋淳夔, 1892-1927) 매일신보 기자. 언론인. 필명은 鳳儀山人. 春川 鳳儀山人,「朝鮮の小說に就いて」,『朝鮮地方行政』3-8, 帝国地方行政學會, 1924, 106~109쪽.

94) 安廊,「朝鮮文學の変遷」,『朝鮮』207, 朝鮮総督府, 1932.8, 109~119쪽.

95) 자세한 연구 성과는 일본 국립정보학 연구서(国立情報學研究所) Cinii 혹은 연구자 검색 사이트 researchmap.com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일본문학 관계자로 한국고전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로는 쓰메야마 히데유키(梅山秀幸), 소메야 도모유키(染谷智之)가 있고, 그 외에는『海東高僧伝』(平凡社, 東洋文庫 2016)의 저자들을 참조. 중국문학 관계자로는 시키사다 마사히로(下定雅弘), 도요후쿠 겐지(豊福健二)가 있다.

## ▌참고문헌

1.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직원록자료

周敦頤,『通書』,「文辭」28

曹丕,『典論』(『文選』所收)

鄭玄,『毛詩』,「大序」

東京国立博物館 디지털 라이브러리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文学部 小倉文庫本 디지털 자료

崔滋,『補閑集』,「補閑集序」

일본 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魏徵上,『隋書』,「列伝」第四十一「文学」

2. 단행본

권영민,『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김사엽,『조선문학사』, 서울: 정음사, 1948.

_____,『김사엽전집』전32권, 김사엽전집간행위원회, 2004.

김영호,『아사이 료이 문학의 성립과 성격(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학술총서 4)』, 제이앤씨, 2012.

김태준『조선한문학사 (조선어문학총서1) 』, 조선어문학회, 1925.

金澤庄三郎,『朝鮮書籍目録』, 간행처 미상, 1911.

高橋菊枝,『赤煉瓦の家』, ドメス出版, 1996.

高橋亨,『朝鮮の物語集附俚諺』, 日韓書房, 1910.

_____,『李朝仏教(朝鮮思想史大系第1冊)』, 大阪: 寶文館, 1929(復刻, 国書刊行会, 1973).

_____,『朝鮮學術史』, 서울: 成進文化史, 1977.

_____, 権純哲 編,『完本 高橋亨京城帝國大學講義ノート〈朝鮮儒學史編〉〈朝鮮思想史編〉』全 2 巻, 三人社, 2021.

小田幾五郎, 田代和生,『通訳酬酢』, ゆまに書房, 2017.

小田省吾, 魚允迪 合著,『朝鮮文廟及陞廡儒賢：附朝鮮儒學年表, 朝鮮儒學淵源譜』, 京城：朝鮮史學會, 1924.

昭和女子大学近代文学研究室,『近代文学研究叢 第25권』, 昭和女子大, 1966.

上垣外憲一,『ある明治人の朝鮮観』, 筑摩書房, 1996.

川原秀城 · 金光来 編譯,『高橋亨 朝鮮儒学論集』, 智泉書館, 2011.

大谷森繁,『韓國 古小説 研究』, 경인한국학연구총서 81, 景仁文化社, 2010.

塚田満江,『半井桃水研究 全』, 丸ノ内出版, 1986.

程永超,『華夷変態の東アジア』, 清文堂出版, 2022.

白井順,『前間恭作の学問と生涯) 35 日韓協約の通訳官 朝鮮書誌学の開拓者』, 風響社, 2015.

幣原坦,『朝鮮教育論』, 六盟館, 1919(복각판『韓国併合史研究資料』59, 龍渓書舎, 2005).

末松保和編,『朝鮮研究文献目録 : 1868-1945, 単行書篇論文 · 記事篇（東洋学文献センター叢刊影印版,

5,6）』, 汲古書院, 1980.
李暁辰,『京城帝国大学の韓国儒教研究：「近代知」の形成と展開』, 勉誠出版, 2016.
鈴木直治,『中国語と漢文：訓読の原則と漢語の特徴』(中國語研究學習雙書12), 光生館, 1981.
임화,『朝鮮新文學史：朝鮮日報〈1940年〉人文評論』, 간행처 미상, 도쿄 외국어대학교 소장본, 1940.

3. 논문

구인모,「다카하시 도루와 조선민요의 발견」,『동방학지』제186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김경래,「다카하기 도루의 조선연구와 사대주의론」,『사학연구』제145호, 2022.
김우형,「장지연(張志淵)의 조선유학사 이해 과정과 그 특징 -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와의 논쟁과 상호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 」,『東方學志』제190집, 2020.
鮎貝房之進,「한문학(韓文学)」,『韓国研究会談話録』2, 韓国研究会編, 1903.5(復刻版『韓国併合史研究資料17』, 龍渓書舎, 1996).
安彦勘吾,「草梁話集」,『帝塚山短期大学紀要. 人文・社会科学編』26, 帝塚山短期大学, 1989.
安廊,「朝鮮文学の変遷」,『朝鮮』207, 朝鮮総督府, 1932.8.
雨森芳洲,「韓学生員任用帳(1720)」,『芳洲外交関係資料・書翰集』(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資料集刊 11-3 雨森芳洲全書3）, 関西大学出版部, 1982.
岡山善一郎,「日本における韓国文学研究の現況と展望」,『語文論集』34輯, 中央語文学会, 2006.
河合鈰太郎,「文學博士河合弘民小傳」,『東洋時報』241, 東洋協会, 1918.10.
岸田文隆,「対馬宗家文書朝鮮語ハングル書簡類の解読作業について」,『국어사연구』제18호, 國語史學會, 2014.
許錫,「明治時代における韓国移住日本人と文学」, 名古屋大学 博士学位論文, 1995.
金永昊,「浅井了意の『三綱行実図』翻訳-和刻本・和訳本の底本と了意」,『近世文芸』91(0), 日本近世文学会, 2010.
金澤庄三郎,「南薰太平歌」,『朝鮮月報』2, 朝鮮月報社, 1899.
権純哲,「高橋亨の朝鮮思想史研究」, 埼玉大学教養学部紀要, 33(1), 1997.
_____,「【資料翻刻】高橋亨京城帝国大学講義 朝鮮思想史概説（上）（下）」,『埼玉大学紀要 教養学部』53(1)(2), 埼玉大学教養学部, 2017-2018.
_____,「〔解題〕高橋亨の京城帝國大學講義ノート」,『埼玉大学紀要. 教養学部』54(2), 埼玉大学教養学部, 2019.
洪憙,「조선학예사」,『朝鮮史講座』1-15권, 朝鮮史学会, 1923-1924.
高橋仏焉,「韓国の文学 春香伝の概説」,『太陽』第12巻 第8号, 太陽, 1906-06.
細井肇,「朝鮮文学傑作集の巻頭に題す」,『朝鮮文学傑作集』, 奉公会, 1924.
山田恭子,「『春香伝』の日本的改変について」,『近畿大学法学』第58巻第２・３号, 近畿大学法学会, 2010.
_____,「明治期以降の朝鮮古典文学作品の和訳状況」,『近畿大学 法学』제 61권 제 2・3호, 近畿大学法学会, 2013.
_____,「宇野秀彌の新資料とその生涯について」,『近畿大学教養・外国語教育センター紀要:外国語編』10(2), 近畿大学全学共通教育機構教養・外国語教育センター, 2019.
_____,「일본에 있어서의 한국 고전문학의 전망과 과제(日本における韓国古典文学の展望と課題)」,

2019년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한국어문학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인문신양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2019년 1월 7일.

酒井雅代, 「近世史部会 近世後期における対馬藩朝鮮語通詞の活動：『通訳酬酢』を中心に」, 日本史研究(632), 日本史研究会, 2015.

松尾茂吉, 「南薰太平歌(1)」, 『조선』1 권 4호, 조선총독부, 1908.6.

上垣外憲一, 「半井桃水に見る明治日本人の朝鮮観」, 도쿄대학 박사학위논문, 1996.

星稀堂主人 · 北魯山人, 「鳳鳴, 朝鮮小說 洪吉童」, 『흑룡(黒龍)』 제 7년 6 호, 黒龍會本部, 1907.

石川遼子 · 三ツ井崇, 「金沢庄三郎著作目録」, 『日本史の方法(1)』, 日本史方法研究会, 2005.

川端千恵, 「対馬藩朝鮮語通詞の朝鮮認識 - 大通詞小田幾五郎を中心に」, 『文化交涉 東アジア文化研究科院生論集』1, 2013.

多田正知, 「朝鮮文学史 (1) (2) (3) 」, 『斯文』11(10)(12)12(2), 斯文學會, 1929~1930.

_____, 「高麗朝漢文学史」, 『朝鮮』181~183, 조선총독부, 1930.6~8.

大川茂雄, 「朝鮮李朝文学年表」, 『国学院雑誌』14(12), 国学院大学, 1908.12.

_____, 「春香伝 (상) (하) 」, 『朝鮮』75 · 76, 1921.

中田午川, 「新譯 楊風雲傳」, 『文教の朝鮮』143, 조선교육회, 1929.9.

田川孝三, 「対馬通詞小田幾五郎と其の著書」, 『書物同好会冊子』第11号, 書物同好会, 1940.

_____, 「겸산(兼山) 홍희(洪憙)의 생애와 활동」, 『한일관계사연구』(5), 한일관계사학회, 1996.

渡辺慈, 「近代における朝鮮本の流通 - 日本との関りを中心に」, 山口県立大学学術情報第14号 (大学院論集) 通巻第22号, 2021.

幣原坦, 「韓国文学談」, 『東洋時報』119 · 121, 東洋協会, 1908.

鳳儀山人, 「朝鮮の小説に就いて」, 『朝鮮地方行政』3(8), 帝国地方行政学会, 1924.

麻生磯次, 「戯曲 春香伝」, 『朝鮮』, 89, 朝鮮總督府, 1922.8.

木戸清平, 「新資料による小宮山天香の研究」, 『明治大正文学研究』(12), 1954.

野崎充彦, 「〈極私的〉朝鮮古典研究の展望」, 『アジア遊学』, 勉誠出版, 2007.

李光洙, 「朝鮮文学の概念」, 『四海公論』, 제1권, 제1호, 제1권 제1호, 四海公論社, 1935(한국문화간행회, 『한국잡지총서(韓国雑誌叢書)8 문학 · 삼사문학 · 시원 · 사회공론』, 보림출판사, 1982 수록).

李昇燁, 「植民地 · 勢力圏における「帝国臣民」の在留禁止処分：「清国及朝鮮国在留帝国臣民取締法」を中心に」, 『人文學報』106,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15.

李曉辰, 「京城帝国大学における韓国儒教研究活動)」, 『東アジア文化交涉研究』卷8, 2014.

龍野沙代, 「朝鮮通信使の見た富士山と金剛山への想い」, アジア遊学, 東京：勉誠社, 2013.

박광현, 「경성제대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 연구 -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41, 동악어문학회, 2003.

和田一郎, 「金鰲新話」, 『朝鮮』139~143, 조선총독부, 1926~1927.

_____, 「石潭行」, 『朝鮮』137, 조선총독부, 1926-10.

_____, 「東廂記(上)(下)」, 『朝鮮』145,146, 조선총독부, 1927.

崔官, 「壬辰倭乱(文禄の役)と日本近世文学」, 『日本近世文学と朝鮮』, 勉誠出版, 2013.

崔南善, 「朝鮮民謠の概觀」(市山盛雄 편, 『朝鮮民謠の研究』, 坂本書店, 1927).

櫻井信栄, 「나카라이 도스이『계림정화 춘향전』에 대하여」, 『일본학』31, 일본학회, 동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이윤석,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의 경성제국대학 강의노트 내용과 의의」, 『동방학지』 제17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임경화,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문학' 인식: '조선어' 문학의 위치에 주목하여」, 『東方學志』 제186집, 2019.
최혜주, 「조선광문회와 재조일본인의 고전 간행을 중심으로」, 『제 6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고전의 (재)해석과 정전의 형성』(The Reception of Classics and the Formation of Canons in East Asia, 2013, 10, 17개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10-17.
허지은, 「쓰시마 朝鮮語通詞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의 생애와 대외인식 - 『通譯酬酢』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0호, 동북아역사재단, 2010.
홍희, 「조선학예사」 1~15권, 『朝鮮史講座』, 朝鮮史学会, 1923~1924.

# The Prospect and History of the Study of Korean Classics in Japan

YAMADA Kyoko(山田恭子)*

Focusing more on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classical studies by the Japanese, we will examine how the Japanese encountered, interpreted, and studied Korean classical literature. First of all, we introduce the “Geumo Sinhwa(金鰲新話)” that came in through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the Wakoku Bonn(Books published in Japan) “Jingbirok(懲毖錄)”, “Nansolheonjip(蘭雪軒集)”, and “Samganghaengsildo(三綱行實圖)” that were circulated after that, and also mention Neo-Confucianism the essential education to understand the admonitions and Kunten (訓點), the Japanese reading method of Chinese, which is essential for interpretation. In addition, we will introduce the Korean classical novels that we read at the time, citing the experiences of Amenomori Hoshu(雨森芳洲) and Oda Ikugoro(小田幾五郎) who worked at the Waegwan in Busan. It mentions that during the Meiji period, newspaper reporters mainly played a role in conveying the situation and culture of Korea, and the translation of “Chunhyangjeon(春香傳)” and serialization of “The Cloud Dream of the Nine(九雲夢)”’s novels were carried out. Regarding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for the management of the Korea-Japan annexation of Korea and colonialism’, we refer to Takahashi Toru(高橋亨), who left the most achievements among Japanese researchers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the founding of the Joseon Research Association(朝鮮研究会). In particular, we will introduce

* Kindai University/Associate Professor

Takahashi Toru's lecture notes and also introduce Lee Kwang-soo(李光洙)'s objection to the contents of the lecture at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京城帝國大學). I will also mention the contents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translated or studied by the Japanese in Gyeongseong. This study is expected to give good implications for how or what points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 the future while looking at the history of the past.

**Key words** : Japanese researchers of Korean literatur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sai Ryoi, Takahashi Toru,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the Joseon Research Association, Lee Kwang-soo, Japanese residents of Gyeongseong

논문투고일 : 2024년 4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24년 8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8월 23일